

# ‘헌정권 실세’ 겨냥 ... 어디까지 파낼까

■ 檢, 천신일 회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盧 사법처리’ 안팎 관심에 부담 덜기?

검찰이 헌정권 실세 중 한 명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사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박연차 게이트’ 초중반 수사 때의 소극적인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7일 천신일 세종나모여행사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천 회장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했다. 지난 6일 서울지방검찰청 조사4과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천 회장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로서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이다. 그는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특 별당비 30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목을 끌었고 대선 기간 고려대 교수회장을 맡아 동문의 지지를 이끌어 내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회장은 1970년대 제철화학 회사를 설립한 뒤 1980년대까지 다양한 회사를 설립하고 매각하다 여행업에 투신해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세종나모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다.

천 회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 회장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각각 대륙그룹회장과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고 박 회장이 2006년 농협으로부터 인수한 휴켄스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천 회장이 박 회장과 헌정권 인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7~10월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천 회장과 박 회장의 사촌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이처럼 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예상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세무조사로 비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몰인하다시피 했던 검찰이 ‘편파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천 회장을 먼저 겨냥한 것이라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여·야 인사를 번갈아가며 사법처리하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면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처럼 수사의 추(錘)가 옛 여권으로 기울면서 편파 수사 및 정치보복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박연차·천신일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편파수사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검찰이 3라운드 수사의 첫 번째 목표로 ‘살아있는 권력’의 주변을 정조준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밖에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집중된 ‘과도한’ 관심을 분산시키려 빠른 속도로 천 회장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세종나모여행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7일 검찰 관계자들이 중구 태평로 세종나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들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檢 “박연차, 베트남서 김원기에게도 돈 줬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 이광재 의원 측 외에 다른 정치인에게도 베트남에서 돈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사했으며 민주당은 ‘박연차·천신일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의원 측에 전달할 돈 5만 달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의 조서에 이 의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판부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베트남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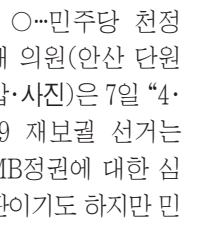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04년 10월 동남아 공식 순방 때 베트남 태광실업 현지 공장을 방문, 박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장의 비서실장 시절인 2004~2005년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택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으며 이 돈과 관련해 지난달 김 전 의장도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천정배 “민주당 전면 쇄신해야”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사진)은 7일 ‘4·29 재보궐 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을 꾸리는 민심의 회초리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의 전면적 쇄신을 주장했다.

개혁 성향의 4선인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행정대학원 초청 ‘한국 정치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지금 이대로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재보선에서 나타난 호남민심”이라며 “지금이라도 작지만 강한 야당, 한나라당과 차별화되는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촛불 1주년 집회에서의 대규모 연행 사태와 유영환 외교교통부장관의 국회 비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를 떨게 하는 것이 신중플루리엔 대한 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MB플루’”라고 맹비난한 뒤 “5·18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계승한 광주 시민이 나서 MB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 “동구청장 공약 잘 이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7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4기 3년차, 광주 동구청장 공약이행 성과와 과제’라는 학술 세미나를 열고 “동구가 모범적인 공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실천본부 유문종 사무총장은 “유태명 청장의 51개 선거공약 중 3년차인 올해 완료된 공약 수는 39개로 조사됐다”며 “‘구청광장의 시민 문화 광장화’ 등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2개 공약을 제외하고 전 부문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박지원도 경선 가세 민주 원내대표 4파전

진에게 내부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친이계 핵심 의원은 “당분간 ‘두나라당’으로 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와 친박 진영도 마냥 흥분할 수는 없다. 어렵게 마련한 ‘화합카드’를 일인 지하여 거절,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내 친이세력은 물론 중도 진영에서도 “도대체 친박의 정체성이 뭐냐”, “당으로서 박 전 대표의 행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소장과 남경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론을 반대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정치력 부족과 박 전 대표의 책임감 결여가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 있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역량과 대외 투쟁력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새롭게 일으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호남과 구 민주계, 주류 일부, 중립지대 표를 흡수하면 승산이 있다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주류(김부겸, 정동영계(이강래), 비주류(이종걸)에 이어 동교동(박지원)까지 합세하면서 복잡한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주류 후보에 맞서 비주류 후보들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꼬이는 한나라 쇄신

## 박근혜 ‘김무성 추대론’ 반대 ... 계파 갈등 변질 가능성

4·29 재보선 참패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나라당의 쇄신 작업이 꼬이고 있다. 여권 수뇌부가 꺼내든 ‘친박 김무성 의원 원내대표’ 카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7일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친이’ 진영에서는 ‘친박’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쇄신 논의가 자칫 계파

간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전 대표는 이날 ‘김무성 추대론’과 관련, “당헌·당규를 어거기면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은 나는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고 수평 중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지도부가 당황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난처한 표정으로 “당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당헌·당규를 어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정치란 후보 간에 조정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여러 방안도 있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고 아쉬워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김무성 합의추대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시공고 제2009-474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8.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지역	총계	1,024,816,264	-	1,024,816,264	100.0	
	소계	59,876,670	증264,443	80,141,113	5.9	
	보전관리지역	17,404,819	-	17,404,819	1.7	
	생산관리지역	17,656,906	감1406,067	17,251,249	1.7	
	계획관리지역	24,815,145	증3670,100	25,485,245	2.5	
농림지역	71,489,875	감264,443	71,225,432	8.9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1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	감	405,657	100%이하	여수시 남도일원을 해양유양형 관광지로 지정 및 개발하여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	계	감	264,443	100%이하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개발진흥지구	관광유양형 개발진흥지구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	670,100	-	

라.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개발진흥지구(관광유양형)	신설 - 670,100㎡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을 관광유양형 관광지로 지정 및 개발하여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남도지구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	-	증3670,100	670,100	

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신설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	670,100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일원을 해양유양형 관광지로 지정 및 개발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관계도면 : 계획생략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관한 사항 : 계획생략  
4. 공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5. 공람기간 : 2009. 5. 8. ~ 5. 2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도시계획과 ☎061-690-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모심**

- 월2부 수익금지급
- 확실한 담보130%
- 안전보장, 수익보장, 비밀보장
- 최소 5,000만 이상 투자가능

**사랑파이낸셜**  
☎062)653-7500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www.insng.org.kr

- 일 시: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광주 인성고 모교 남매체육관
- 행사내용: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강현규 TEL: 011-614-0898 최성훈 TEL: 011-611-0442 송상훈 TEL: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www.insng.org.kr

- (부행사): 축구, 배구, 탁구, 동타리기, 400m 계주
- 일 시: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행사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동문회 회원 등
- 후원: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제5회 국가공인 농산물 품질관리사** **친환경월빙시대 최고의 자격증!**

**국비환급 100%**

시험일정	특 징
1차시험: 9월 9일 (일) 오후 2시	▶ 농산물의 등급판정 (고소득 보장)
2차시험: 10월 18일 (일) 오후 2시	▶ 중앙회, 지역농협 공채시 가산점 5점
	▶ 공무원, 농업관련 직종 응시자 가산점 5점
	▶ 관련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채용업체에 지급지원

**개강 5월9일(토)**

**광주 박문각 행정고시 학원** ☎062)529-8839

■ 위치: 문암동 광암고가 옆 삼매신협 2층